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내 평생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적어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항상 내게는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하루도 오롯이 쉬어본 적이 없었다.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픈 날도,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마저도 나에게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었다. 코로나 휴가라는 게 있다더니 내게도 이런 날이 왔다.

“끝물이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안 걸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나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줄줄이 확진되는 동안에도 굳건히 코로나와의 전쟁을 2년 넘게 버텼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했다. 뒤늦게 빌어먹을 코로나19에 무릎을 꿇고 확진자 숫자에 기여하며 역사에 남게 된 것이다. 지난 수요일 함께 등산 다녀온 친구가 먼저 확진이 되었고 뒤이어 나도 확진이 되었다. 비염 때문에 아침마다 목이 칼칼한 편인데 이날은 칼칼한 목이 오후가 되어도 나아지지 않더니 밤이 되자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는 식구들과 격리되어 7일간 안방에 갇히게 된다.

확진을 확인하고 며칠 내에 엄청난 통증이 있을 거라고 경고들을 했지만 다행히 감기 정도의 통증 이외에 어마어마한 인후통, 고통스러운 침 삼킴, 잠을 설치게 한다는 기침도 입맛을 잃게 한다는 후각 상실 증상도 없었다. 다만 얼굴에 열감이 있고 매일 세 번씩 약을 먹어도 약간의 미열이 있고 콧물, 코막힘, 가래, 목이

불편한 정도로 일반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방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얼마나 꿈꿔왔던가? 가족들의 삼시세끼 걱정할 필요 없이 혼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자유를 그토록 염원했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순간이 왔는데 그다지 신나지 않다. 휴식이라 하지만 결국 나는 격리 신세였기 때문이다. 내가 원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생활이 아니고 내가 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었다. 게다가 이를 이상 집에만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나의 체질 때문에 더욱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오늘로 자가격리 6일 차, 지난 6일 동안 나는 미국 드라마 시즌 1개를 끝내고 한국 드라마 16부작 미니시리즈 2편과 영화 5 편을 끝냈다. 미니시리즈는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였는데 연이어 봐서 그런가 집중도 떨어지고 재미와 감흥이 훨씬 떨어졌다. 8주에 걸쳐서 시청해야 할 미니시리즈를 단 이틀 만에 해치우려니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제곡이 돌림노래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 떨미가 났다. 그래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루 종일 TV 전원을 켜 두었다.

입맛이 없어서 격리 기간 중 살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였다. 삼시세끼 남김없이 먹어치우며 침대 위에서 하루의 23시간을 보냈더니 순식간에 나도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다. 남편에게 밥을 너무 많이 퍼주지 말라고 툭툭거리면서도 넣어주는 모든 음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중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도 식욕

이 여전하다는 사실에 비판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험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침대에 드러누워 드라마를 보며 친구들이 집 앞에 두고 간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데 밖에서는 남편이 재택근무와 병행하며 내 대신 요리와 청소를 하고 분주하게 아이들을 돌보며 고군분투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첫날은 걱정도 되고 살짝 불안하기도 했지만 방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모두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일들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니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다. 밖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남편의 언성이 높아져도 아이들이 숙제를 하든 학원을 시간 맞춰 가는 내가 간섭 할 바가 아니라고 내내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 문 하나 닫혀 있을 뿐인데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이제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면 격리가 끝난다. 꽤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면 즐기라고 했던가? 누리자. 앞으로 당분간 이런 날은 쉽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나만의 온전한 지금 이 휴가를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즐기면 된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이 뜻밖의 휴가를 마치고 나가면 내 역할을 대신 해준 가족들과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준 지인들을 온 마음으로 안아줄 작정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풀러튼 타운홀 \$ 625천

아직 마켓에 나오지 않은 집, 5/28 부터 가능 방 두 개 화 2.5 1204 sqft, 밝은 실내, 리모델링 아주 잘된 집, 게이트 커뮤니티 최고의 학군 2car garage



풀러튼 콘도 \$ 724천

아직 마켓에 나오지 않은 2007년 아주 새 콘도 5/28 부터 가능, 방 2 화 2.5 1819 SQFT, 무조건 보셔야 하는 집, 거리지 두 개, 풀러튼 다운타운 도보거리, 밝은 집, 집 전체 완전 리모델링, 처음 집 구매자 또는 렌트비 잘나오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풀러튼 단독 주택 \$ 79만

방 3 화 2 대지 6700 SQFT 안팎으로 리모델링 다 되어있는 집, 남가주 이웃 도어 라이프 즐기면 딱 좋은 넓은 마당 ADU 지을 수 있는 포텐셜 가득한 매물, 놓치지 마세요



풀러튼 타운홀 \$ 549천

마켓 가격 보다 싸게 나온 집, TLC 필요한 집 최고의 초중고 도보거리 방 2 화 2 실 평수 보다 훨씬 커보이고 아주 실용적인 집안 구조, 2car garage 아주 넓은 실내 구조, 풀러튼 학군, 커뮤니티 수영장



풀러튼 하우스 \$ 775천

방 3 화 2 1200 sqft 브레아를 가까이 위치 아주 쾌적한 환경 전체 오픈구조 트레벌틴바닥 Cul de Sac



풀러튼 콘도 \$ 71만

방 4 화 3 1700sqft 키친과 목욕탕 업그레이드 많이 된집 마루바닥, 그래닛 카운터 말로설명이 부족한 보셔야 하는 집, CSUF 트로이 고등학교 근처

###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사장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Residential \* Commercial \* Investments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Get it done right with Leah Ivy Chang”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